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채 수 진 · 김 혜 연

밀양대학교 의상디자인과 강사 ·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교수

A Study on the Androgynous Phenomena in
Contemporary Fashion from the Feminist's Viewpoint

Soo-Jin, Char · Hae-Yun, Kim

Miry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and Interior Environment Design

ABSTRACT

As androgyny presented by feminism still appear in contemporary fashion since mid 1980's, feminism as a social phenomenon can be considered to have influenced fashion history. This paper surveys the sex images of androgynous look that appeared in contemporary fashion into bisexual images and neutral images based on the feminist aspects of changes in contemporary fashion. As stated above, bisexual images and neutral images of androgynous look shown in clothing are an attempt to reach one single integrated complete being by overcoming 'femininity' or 'masculinity' and combining the elements of the two sexes. Consequently, androgynous look creates new attraction by harmoniously coordinating characteristics of the two sexes instead of totally differentiating between masculinity and femininity that are represented in the form of clothing that has conceptual visual characteristics.

Following are the conclusions of the reseach of this paper. First, 'androgynous' as a feminist sex concept reflects the spirit of the times. Since the sex roles are divided and diversified, and the concept of femininity is changing, the concept of androgyny requiring both masculine and feminine characteristics is an essential sex concept for successful conduct of roles in a complex modern society. Second, the integrated human image of androgynous look has led to a new culture with fashion trends that has been ahead of times by curing the functions of fashion to differentiate between men and women. Third, androgynous look at the turn-of-the-century will not cease to exist but be a lasting fashion phenomenon, while the sex concept presented by feminism has become the core to destroy the dichotomous fashion

style of the 20th century. Fourth, androgynous look is expressed in various manners in contemporary fashion since it shows how human beings accept the adaptation method desperately required by the contemporary times. Androgynous look can be viewed as the desire for ultimate freedom that can be acquired by destroying the dichotomous sex concept and as the will to become a subject of the world as integrated human being.

As we look into fashion culture, creation of fashion is not the result of an accidental cause or an individual's work but the reflec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In this sense, androgynous look introduced by a new sex concept to contemporary fashion has reflected the spirit of the times and led the cultural atmosphere, and moreover, it is an important fashion style that can characterize the contemporary times while lasting in the future.

I. 서론

20세기의 특징적인 사회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전통적인 성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남, 녀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존의 성개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고와 행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영역을 축소시켰으며, 남, 녀를 구분 짓는 수단으로 사용된 복식은 이러한 구속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9세기말부터 조심스럽게 등장한 페미니즘은 불변적이라고 여겨졌던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생활 형태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복식에도 혁신적인 변화의 영향을 미쳤다. 즉, 페미니즘의 영향과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경제적 자립수준이 개선되면서 남녀 성역할(sex role) 구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심리학에서는 새로운 성역할 개념으로 '심리적 양성성(androgyny)'이 등장하였다. 즉 양성성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양성성을 지닌 사람은 적응력이 우수하며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등장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으로 극대화에 이르게 된다. 즉,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타

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된 페미니즘으로 여성들만의 해방운동이 아닌 남녀공동의 인간해방을 중점으로 하면서 새로운 성개념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양성성(androgyn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대복식에서도 '앤드로지너스 룩'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문화현상 중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페미니즘이 제시한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니'에 관하여 알아보며, 이를 통해 현대복식에 보이는 페미니즘적 현상과 이에 따른 복식요소를 고찰하고 현대복식에 보이는 '앤드로지너스 룩'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갖고 페미니즘의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니의 다각적인 연구를 위해 사회심리학, 복식사의 문헌자료와 논문, 패션 전문지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자료를 발췌하고 실제적인 시각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1960년대 이전인 과거의 페미니즘과 1960년대 이후에 보이는 후기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복식현상과 복식요소를 다루고, 페미니즘적 성개념에 기초한 앤드로지너스 룩이 본격적으로 패션에 등장하기 시작한 1985년에서 현재까지의 앤드로지너스 룩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II.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적 성개념

1. 페미니즘의 개념

페미니즘은 남성 주도 사회가 형성해온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성적 특성을 재 정의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¹⁾ 즉 페미니즘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남녀평등 운동이다.

광범위한 기초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적 관점들과 마찬가지로 페미니즘은 그 밑에 여러 개의 층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자신의 접근방법을 대체로 자유주의적, 문화주의적, 마르크스주의적, 급진주의적, 사회주의적, 실존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²⁾ 즉 이렇게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페미니즘 이론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항하여 그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페미니즘 사상의 시작이다. 1792년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열등성은 교육기회의 부재에서 온다고 믿었다. 즉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여성해방에 있어 교육적, 법적 개혁을 비롯한 많은 개혁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³⁾ 그러나 공공정책을 통해 남녀 불평등 문제

를 해결하려 하였고 남녀 불평등 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파고들어 가지 못함으로써 자유주의 페미니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⁴⁾ 문화적 페미니즘 이론의 기본은 여성적인 관심사와 가치관에 의해서 지배되는 강한 여성사회라는 이념이다. 즉 소외당해 왔던 여성들의 속성들을 공적세계에 통합시켜 폭력과 전쟁이 없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창출하려는 이론이다. 이와 같이 19세기의 문화적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결정론이라는 점에서 인간자유 가능성을 방해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페미니즘은 여성의 속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해방의 전제조건은 생산수단이 전체사회의 재산이 되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믿는다.⁵⁾ 또한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사 노동의 산업화와 사회화를 거론하고 있다.⁶⁾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 체제와 관련지어 해결하려는 사고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술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억압의 근원을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등의 신체적 사실에서 찾고 있다. 다른 한편 샬롯 번취(Charlotte Bunch)는 성차별주의와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결혼이 여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

1) Maggie Hum, 심정순, 엄경숙 옮김, <페미니즘 이론사전>, 서울: 도서출판 삼신각, 1995, p.316.

2) 로즈마리 톱,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서울: 한신문화사, p.2.

3)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13.

4) J. Donovan, 김익두, 이월영역, <페미니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3, p.67.

5)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1994, p.232.

6)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과 남성을 위한 여성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p.20.

결혼의 폐지를 주장한다.⁷⁾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성차별의 기반이 되는 구조로서 가부장제 개념을 도입하고 여성의 생리적 제약을 문제시한 점은 여성 문제의 다양한 영역들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여성의 출산능력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출산 능력을 약점으로 보는 관점은 이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첫째, 여성 해방에 있어서 여성의 생산에의 참여는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 전제이며, 둘째,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출산은 여성을 자연적인 제약 속에 묶이게 하는 것으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셋째, 성관계에서는 일부일처제가 확립되어 남녀간에 성적 역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하며, 넷째, 자녀 양육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상의 네 가지 구조의 개혁은 통합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그러나, 이러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모든 문제를 '계급' 분석을 우선시 했다는 점과 출산, 성활동, 그리고 어린이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을 여성들이 제기하고 답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존주의 페미니즘은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여성 문제를 규명하려는 사상¹⁰⁾ 시몬느 드 보바르는 여성은 '타자성'으로 인해 억압당한다고 주장했다.¹¹⁾ 보바르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를 널리 인식시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바르가 내세운 용어들은 비공식적으로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기 쉽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육체를 종종 부정적으로

로 보고 있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부장제의 담론과 재현체계를 불신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이해가 부합될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결합시키는 동기가 된다. 1980년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평등의 추구보다는 차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차이의 페미니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차이의 페미니즘은 본질주의와 해체주의로 구별된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무효화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이것 또는 저것, 나 또는 그것, 주체 또는 객체의 이원론을 지양하고 양쪽을 다 포괄하는, 즉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을 새로운 대안으로 보았다.

2. 성역할과 성개념

일반적으로 성(性)이라고 하면, 선천적인 성(sex)¹²⁾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성은 남자(male), 여자(female)임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후천적인 성은 남성성(Masculinity), 여성성(Femininity)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후천적인 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자도 얼마든지 남성다운 성격을 소유할 수 있고 반대로 남자도 남성다운 성격뿐만 아니라 여성다운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즉 성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역할(gender role)은 학습되는 것이다. 성역할이란 같은 성의 구성원들 간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적 성향으로 개인의 행동, 의식구

7) Maggi Hum, 앞글, p.58.

8) 로즈마리 통, 앞글, pp.109-118.

9) 하이다 하트만, 린다 번햄 외 지음, 김혜경, 김애령 옮김,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서울: 태담, 1989, p.72-76.

10) 신옥희, <여성학 영역별 연구: 철학적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3, p.7-14.

11) 로즈 마리 통, 앞글, p.10.

12) Walum의 정의에 의하면, 선천적인 성이란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일종의 귀속적 지위(ascribed status)의 성질을 가진 것이지만, 후천적 성이란 일단 태어난 후에 개인의 정신 역학적, 심리적,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environmental factors)에 의하여 획득되는 성취적 지위(achieved status)의 성질을 가진 것이다.

〈표-1〉 페미니즘 이론

	중심 내용	의 의	한 계 접
자유주의 페미니즘	· 페미니즘 사상의 시작 ·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	· 교육적, 법적 개혁을 비롯한 많은 개혁을 가져다줌	· 공공정책을 통해 남녀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 남녀 불평등에 대해 역사적, 구조적인 차원까지 파고 들어가지 못함
문화적 페미니즘	·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강조 · 여성들의 속성을 통해서 바림직한 사회상을 창출	· 여성의 속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함	·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인간자유의 가능성을 방해함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 여성억압은 사유재산의 도입과 함께 시작됨 · 가사노동의 산업화와 사회화를 주장	·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체제와 관련지어 해결하려함	· 자본에 대한 여성억압만을 설명해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을 간과함
급진주의 페미니즘	· 여성억압을 ①여성의 신체적 기능, ②성차별주의, ③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화제도(결혼)로 봄	· 성차별 기반구조를 가부장제 개념으로 보고 여성의 생리적 제약을 문제시함	· 여성문제를 대남성 투쟁 문제로 봄 · 여성의 출산 능력을 약점으로 봄 · 피지배계급과 인종 문제를 도외시함
사회주의 페미니즘	·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절충=> ①여성의 생산에의 참여 확대, ②여성출산문제 해결책이 필요, ③남녀간의 성적역할이 동등, ④자녀교육의 사회화를 주장함	· 가족의 기능과 여성의 가사노동을 중요시함	· 모든 문제를 마르크스주의적이라 일컫는 '계급'분석을 우선시 함 · 출산, 성활동, 어린이들의 사회화에 대한 문제들을 여성들이 제기하고 답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실존주의 페미니즘	· 실존철학을 바탕으로 여성문제를 규명 ->자아를 상실하지 않으면서 타자와의 참다운 공동체를 이룩하려함	· 여성문제를 널리 인식시켜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줌	· 용어들이 철학적이라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에게 보바르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강요하게 됨 · 여성의 육체를 종종 부정적으로 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 성은 사회 문화적 산물이므로 여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여성관은 환경과 교육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 이원론을 지양하고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모두 받아들이는 접근 방식을 취함	· 철학적 가설들이 너무나 다원적이어서 부질서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차이에 대한 지나친 지적, 정치적 붕괴로 유도될 수도 있음

조, 동기, 태도 등에 가장 철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¹³⁾

이와 같이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학습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하여 생각하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여 남편은 한 가정의 대표로서 대외적 역할을 담당하고 부인은 가사와 자녀 양육의 대내적 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했다.¹⁴⁾ 그러나, 현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였고 성별에 따른 역할도 분화되어 다양화됨에 따라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현 사회구조는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어서, 타인과의 협동능력등의 여성

13) 전병제,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1981

14) 박은아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형태와 성역할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13.

적 특성이 지배성과 같은 남성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요구되었다.¹⁵⁾

이에 따라 산드라 벰(Sandra Bem:1974)은 남성성, 여성성으로 나누는 성역할의 이분법이 현대 사회와 같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는 성공적인 역할 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 새로운 성역할 개념인 전통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이라고 간주되던 분기점을 깨뜨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소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androgyny) 개념을 제시하였다.¹⁶⁾ 양성성은 남성을 일컫는 andro와 여성을 일컫는 gyn으로 구성된 용어로서, 하나의 유기체내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원래 생물학에서 자웅동체(雌雄同體)를 일컫을 때 사용되며, 최근 수년동안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특질의 양자를 모두 가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 오고 있다. 즉 심리적 양성성이란 한 개인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면서 이를 통합시켜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성격이다. 따라서 이 양성성은 현대 사회의 이상적인 성향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⁷⁾

3. 페미니즘적 성격

1960년대 이후 무한한 자유에 대한 욕구는 성에 대한 기존 규범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그로 인한 성의식 해방은 여성해방은 물론, 남성해방의 동기가 되

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60년대와 70년대의 페미니즘은 20세기 초반의 여성운동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물론적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을 주장하였지만 여성의 억압을 규명하기 위해 경제적 문제 및 계급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억압의 기초가 성에 기인한다고 보아 임신, 출산과 같은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페미니즘은 권력자체를 해체하고 다양한 차별적인 것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만나게 된다.¹⁸⁾¹⁹⁾ 이러한 80년대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性)의 차이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차이의 페미니즘'으로 규정되었고, 다시 보는 관점에 따라 새로운 여성성을 대두시켜 그 차이에 의미를 부여한 '본질주의 페미니스트'와 남녀이분법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없애고자 한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로 구별되었다.²⁰⁾ 즉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과 남성성을 해체함으로써 남녀 범주의 유용성을 거부하고 여성성의 개념 안에서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즉 정체성을 의심하는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적 성(sex)으로부터 문화적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되고 역사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렇게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수용함으로써 여성만의 해방으로부터 남녀공동의 인간해방, 즉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분법과 성차별의 난국을 극복하는

15) 김윤경, <남자 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5.

16) Bem, S.L.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Vol. 42, no. 2, 1974, p.155-162

17) A.G. Kaplan, <Psychology and Sex Rol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9, p.76-79.

18) 김홍희,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미술 7월호, 1994, p.168-169.

19)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은 1960년대 이래 발전되어 오면서 많은 관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계 즉, 예술과 삶,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지배계급과 주변부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관심을 기울였는데,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은 기본적으로 저항문화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20) 김영희, 이명호, 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 딜레마>, 여성과 사회, 1992, p.62.

하나의 강력한 해소방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페미니스트들은 '양성성(androgyny)'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즘이 제시한 양성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성은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도 아니며, 남성주의나 여성주의도 아니다. 또한 그것은 성적 특성의 부재도 아니다. 둘째, 이러한 남녀 양성성과 여성성의 혼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는데 1970년대의 여성화된 남성이 남녀 양성성의 도태를 예고한 것이라고 믿어졌으나 이 무기력한 남성이 남성적인 면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실망하였다.²¹⁾ 현대적인 남녀 양성성의 개념은 양성의 결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양성을 제거해버리는 혼합으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남녀 양성성은 모호한 성도 아니며 동시에 여성이자 남성인 것도 아니며 그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번갈아 가며 자신의 두 가지 요소를 표현한다. 즉 남녀 양성적 인간은 성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타인과 분명히 구별되고 또한 자신이 주체적인 순간에만 이타성을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이다.

III. 현대복식과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차이가 자체보다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 것로부터 남녀 의복스타일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볼 때 페미니즘은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남성주의의 사회가 형성해 온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여성의 성격특징을 재 정의하고 찬양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페미니즘의 본질로 보기 때문이

다. 또한 페미니즘 사상들은 여성들의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원동력을 주었으며, 여성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현대 패션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²²⁾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이미 고찰된 페미니즘 이론과 특징을 바탕으로 복식사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현상과 복식요소를 시대순으로 과거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1960년 이전과 후기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1960년대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1960년대 이전

의상개혁운동이 여성복식에 기능성을 도입한 복식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남성복식의 모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을 우월하게 간주하고 여성 해방의 방법으로 여성의 남성화를 주장하는 초기의 페미니즘과 그 맥을 같이 한다.

1850년 아멜리아 블룸머(Amerlia Jenks Bloomer) 여사가 블룸머를 소개하여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시켜 주었는데 의의가 있다.²³⁾ 여성복식에 남성복식의 도입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더욱 본격화되었고 이는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생겨난 여가시간의 영향으로 이러한 여가시간은 스포츠의 확산을 가져와 여성의 테일러드 수트와 바지 착용의 일반화를 가져왔다.

1908년 유럽에서 뿔 뺀아레(Paul Poiret)의 코트셋의 제거는 여성해방사에서 복식을 통한 육체의 구속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전쟁의 결과로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함에 따라 이전에 즐기던 치마 단은 전쟁과 더불어 짧아졌으며 1914년에서 1929년 사이에 테일러드 수트가 정립된다.²⁴⁾ 1920년대에는 제 1차 세계대전의 영향

21) 엘리자베트 바덴테, 최석 역,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서울: 민맥, 1992, p.254.

22) 손미희, 임영자,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1997, 5, p.275.

23) 광미영, 정홍숙,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1991, 3, p.242.

24) Ernestine Carter, <20 Century Fashion>, London: Eyre Methuen, 1975, p.30.

으로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많아져 기능성을 더욱 강조한 직선형의 실루엣이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보이쉬 스타일(boyish style)을 유행시켰다. 20년대의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디자이너인 샤넬은 기능성을 고려하여 니트로 만든 쓰리피스 슈트(three piece suit)를 유행시켰고 또한 펄프가 거의 없는 장방형의 슈트를 발표해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기능성을 강조한 복장을 유행시켰다.²⁵⁾ 1939년에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에 따라 여성들은 군복스타일인 무릎 바로 아래길이의 실용적인 스커트와 어깨 폭이 넓은 자켓을 착용하였다.²⁶⁾ 이는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으로 하나의 모드로서 계속 변화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입혀지고 있다.

이러한 오랜 역사를 통해 투쟁해온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들의 의식변화로 모든 여성들은 기능적이고 편리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2. 1960년대 이후

1960년대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코르셋은 여성이 결정하는 성적인 것을 내포하는 동시에 출산을 거부하는 해방의 의상으로 이해되었고 미니스커트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젊음의 상징이었으며, 그 동안 억제되었던 여성들의 자유의지를 표

현한 것이었다.²⁷⁾

1960년대 후반 패션은 히피, 학생-젊은이들이 주동이 된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히피들의 의상과 액세서리, 헤어스타일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은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남녀의 구별 없이 사용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⁸⁾ 또한 청소년 하위문화의 특징인 남, 녀의 성 관념에 대한 변화는 이후 외모의 혼동을 초래하였다. 이것은 의복에 있어서 남성은 페티시즘²⁹⁾으로 인해 여성다운 스타일로, 여성은 유니섹스 룩으로 나타났다.³⁰⁾ 이는 의복을 통해 그들의 성역할에 대한 내적, 외적의 변형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인체를 새롭게 정형화시키고 조절하였다.³¹⁾ 그래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은 정형화된 여성성에 순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노브라(nobra) 패션이 유행하였다.³²⁾ 하이패션계에서는 팬탈롱(pantaloons)이 발표되었고 뒤이어 남성복의 영향을 받아 여성 팬츠 스타일을 선보였다.³³⁾

1970년대는 남녀 교육의 평준화로 인한 남녀역할의 유사화와 증가하는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이전까지의 남성중심의 환경 속에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새로운 경력을 쌓는데 주력하게 되어 옷에 신경을 쓸 시간이 적어지자 의식적으로

25) 김성은, <20세기 미술사조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샤넬과 이브 생 로랑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2-24.

26) David Bond, 경현수역,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1992, p.124.

27)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Thames & Huston, 1988, p.261.

28) David Bond, 앞글, p.213.

26) 페티시즘(Fetishism) : 페티시즘이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신체의 부적절한 부분이나 의복의 한 품목을 택하는 일종의 이상 도착증(異性倒錯症)으로, 자연스럽게 이성의 복식요소를 일부 혹은 전체에 도입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복식 요소의 범위는 의복 항목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발, 하이힐, 장신구 등 이성의 물건을 도입하여 만족을 얻는다.

30) 김이근,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28.

31) 전혜정,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 1994, p.20.

32) 신상욱, 앞글, 358.

33) David Bond, 앞글, p.112-113.

남성적 재단형태의 코트와 자켓을 착용하게 되었다.

1970년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의 패션 거부는 표현 체계의 거부였다.³⁴⁾ 그런 거부 상황에서 패션은 여성을 구성하는 어휘이므로 표현체계를 제거하기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인 스커트를 벗어버리려 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 페미니스트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중요시하여³⁵⁾ 그들은 의복을 실용적으로 입기 위해 진을 입고 배지 이외의 모든 장식을 배제하고 유일한 액세서리로 큰 가방을 들었다. 이와 같은 페미니스트들이 패션을 거부하는 행위는 여성을 대표하는 패션의 힘에 대한 공격이며 보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 여성의 팬츠수트의 착용은 여성해방의 큰 결실중의 하나로 남녀동질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성의 남성복의 착용은 억압된 사회로부터 해방하고자 하는 의식이 한층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성차를 다루는 문화구조에서 여성은 자연으로 남성성은 문화와 동일시된다. 동시에 남성은 순수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여성은 인공적인 것을 나타내도록 강요된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이러한 여성성의 인공성을 순수성으로 대치하려는 시도에서 '자연스러움'을 주장한 패션에서 내추럴 룩(Natural Look)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을 부정하고 은폐하는 작용일 뿐이다.

1980년대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체를 재해석하여³⁶⁾ 여성의 인체를 긍정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여성인체의 해방을 주장하여 여성을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복식에 있어서 이러

한 페미니즘의 사고는 선정적인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신체적 강조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여성의 인체에 대해 재해석하고 여성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페미니즘사고를 반영하는 패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자들의 성적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함께 1980년대에 등장해 90년대 이후까지 예술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현대복식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의 현대복식에서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주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³⁸⁾ 포스트모던 해체현상은 복식에서 상호텍스트성, 탈중심성,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분리된다. 상호텍스트성에 의해 성에 대한 시각자체가 해체되고 서로 반대되는 성간의 상호연관성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으로 이것은 여성이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시켜 성차별을 두지 않는 외상으로 표현되어 80년대 이후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1990년대에 들면서 듀얼리즘(dualism)이 대두되어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아닌 동등한 별개의 성이면서 통합적 이미지로서 표현하였다.³⁹⁾ 탈중심성은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의한 절대적인 성차보다는 남성안의 여성성을 억압하는 성으로서 남성을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여성안에서도 남성성이 존재하며 여성안의 남성성 또한 억눌려있을 뿐이라는 인식하에 그러한 인식의 내재적인 의미를 해체시키면서 보여지고 있다.⁴⁰⁾ 의미의 불확정성의 이론은 포스

34) Willson, E., <Adorned in Dreams>, Virgo, 1985, p.234. (전혜정, 앞글, p. 55에서 재인용)

35) 전혜정, 앞글, p.53.

36) 손보경,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23.

37) 손미희, 임영자, 앞글, p.270.

38) 이소영, 앞글, p.14.

39) 구인숙, 이영재, <현대복식에 표현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9호, 1996, p.12.

〈표-2〉 페미니즘과 현대복식

페미니즘의 유형	과거의 페미니즘: 남녀 평등하다는 개념으로 성별의 동질성을 주장	후기페미니즘: 성별 이질성			
		· 유물론적 페미니즘: 성차별의 권력관계적 측면을 주목하면서 남녀평등을 주장	· 급진적 페미니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 차이의 페미니즘: 기존의 남녀평등의 실현보다는 성(性)의 차이에 주목함	
시기	1960년대 이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페미니즘적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C중반: 여성의 남성화를 주장 · 여성의상개혁운동 ->블루머 착용 · 20C 초: 스포츠 확산 ->여성의 테일러드 슈트와 바지착용의 일반화 · 코르셋제거: 여성 해방사에서 복식을 통한 육체의 구속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의 거부: 정형화된 성거부, 나르시즘의 거부 · 여성의 인체를 새롭게 정형화시키고 조절함 => 브레이저를 태워버림: 여성 스스로 인체의 권리를 찾아 자유와 안락을 추구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션거부 계속됨: 스커트를 벗어버림 · 여성운동의 영향과 교육의 평준화로 남녀역할의 유사화: 펜츠슈트의 유행 · 사회활동에 적합한 남성복식을 적극 수용해 매니쉬 감각을 표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체의 재해석: 여성인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여성인체의 해방을 주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남자들의 성적도구로 전락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인공성 대신 순수성을 대치시키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 현상 => 남성복, 여성복이라는 개념이 제거되고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 완성상태가 결정됨
복식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60년대: 투피스 형태의 자켓과 스커트 착용 · 1890년대: 수트형 복식 · 1908년: 코르셋제거, 튜블라 스타일 · 1920년대: 샤넬의 쓰리 피스 슈트 · 1924년: 보이쉬 스타일 · 1939년: 밀리터리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년: 관탈롱 발표 · 1967년: 팬츠스타일 · 미니스커트: 여성들의 자유의지의 표현임 · 히피의 영향: 20C 처음으로 남녀 구별 없이 착용하는 계기를 마련함 =>성(性)의 장벽을 넘고자 하는 시도를 시작함 · 남성: 페티시즘 · 여성: 유니섹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일러드 슈트가 직장 여성의 일반적인 복식이 됨 · 플레이드 무늬의 펜츠 슈트 · 매니쉬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추럴 룩 · 선정적인 스타일 (글래머러스 룩): 70년대 매니쉬 룩에 대한 여성적인 경향이면서 자신감의 표현 -> 씨쓰루 소재, 보디컨셔스 스타일, 속옷의 겹옷화 · 앤드로지너스 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리즘: 남성과 여성의 성구분이 아닌 동등한 별개의 성이면서 통합적 이미지로 표현 · 앤드로지너스가 계속됨

트모더니즘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과정 속에서 남성복, 또는 여성복이라는 개념이 제거되고 착용자의 연출에 의해 완성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행하는 과정 중에서

우연성을 지향하는 것과 통한다. 지금까지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세기의 패션의 전개는 의상으로서 여금 성의 명확한 분리에서부터 성의 혼돈으로의

40) 윗글, p.13.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기초적이며 내면적인 영향력은 20세기에 걸쳐 전개된 페미니스트들의 여성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주장한 페미니즘의 영향이라 보며 이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고정된 성별체계를 흔들어 놓았고 여성들은 이러한 자유에 대한 의지와 다음에 살펴볼 양성적 인간상을 의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해 왔다.

IV. 현대복식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현상

1. 현대복식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새로운 성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앤드로지너스이다. 앤드로지너스의 이미지가 나온 것은 19세기 즈음으로, 이 당시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활동은 먼저 여성에게 있어서 활발한 사회활동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역할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것은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을 의미하는 앤드로지너스의 개념과 일치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앤드로지너스는 현대복식에 등장하여 상대의 성으로만 생각했던 패션의 이미지를 자신속에 통합시켜 앤드로지너스 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점은 남녀우열의 존재를 희석시키며 평등한 인간이라는 의미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양성적 인간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고대 그리스어인 앤드로지노스(androgyynos)를 어원으로 하며, 남자를 뜻하는 앤드로(andro)와 여자를 뜻하는 진(gyn)의 합성어으로써 androgyny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두 특징이 결합되어 하나의 다른 성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 3의 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⁴¹⁾ 즉 양성성은 육체적, 성적이기보다는 사회 문화적 의미에서 사용되며 남녀의 심리적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⁴²⁾ 이것이 상황이나 때에 따라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각각 나타나는 것이다.

앤드로지너스 현상은 패션에 있어서 정신적인 양쪽성의 특징 결합을 복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즉 정신적인 면의 앤드로지너스는 그 개념을 복식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의 특징을 결합시켜 시각적으로 표출시켰다. 이러한 패션에서의 앤드로지너스는 hermaphroditism⁴³⁾이나 bisexuality⁴⁴⁾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인 면의 양성화를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근본원리와는 다소 변질되어 좀더 왜곡적으로 현대복식에서 보이고 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이성(異性)의 복식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지니는 특성을 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융합시키는 표현방식이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회진출에 따른 활동적인 삶 자체를 포함한 멋이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감성이고 미에 대해 악의 없는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⁴⁵⁾ 앤드로지너스 룩은 한가지 성위에 다른 성의

41) <High-Fashion>, 1984년 10월, p.209.

42) 강혜원, 앞글, p.186.

43) hermaphroditism : 반대되는 성의 성적 특징이 발견되는 생리학상의 변태를 의미하며, 외부의 생식기, 내부의 성적 기관, 염색체의 성질, 호르몬의 상태와 부차원적인 성적 특징들이 반대되는 성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성(sex)에 대한 남자와 여자의 혼동을 의미한다.

44) bisexuality : 성적행동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프로이드는 호모섹슈얼리티(homosexuality)와 헤테로섹슈얼리티(heterosexuality)를 bisexuality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즉 bisexuality는 사회적 인성(gender)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의 혼동을 의미한다.

45)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p.95-96.

요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완전한 존재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며, 성을 초월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최근의 패션에 있어서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러한 관념의 표현이기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양성의 특징 결합이라는 명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시켜 나타내는 것으로 자유로운 조화는 앤드로지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⁴⁶⁾ 진정한 '앤드로지너스'는 인간의 성에서 생물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고정화된 관념의 모든 것을 말살함으로써 의복과 외모에서 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소재를 혼합하거나 무언(無言)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⁴⁷⁾ 이와 같이 앤드로지너스 룩은 관념적인 앤드로지너스 개념이 시각적인 특징을 갖는 의복의 형태로 나타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멋을 창출해내고 있다.

2. 앤드로지너스 룩의 조형적 분석

일반적으로 복식은 착용자의 성을 표현하고, 성은 복식에 의해 역사적으로 구분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복식의 독특한 기능은 두 성의 특징을 강조하여 이들을 구분 짓기도 하지만, 두 성의 특징을 은폐하여 이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복식에서의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이탈된 그 외적 조형성에 따라서 앤드로지너스 룩을 크게 양성적 이미

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너스에 의해 양쪽 성의 특징을 모두 가진 사람과 성이 역전된 사람, 양쪽성의 특징을 거의 갖지 않은 중립적인 자로 변하여, 복식에서의 성개념도 새롭게 바뀌었다. 즉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동된 경우와 복식에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모두 배제된 경우가 존재하게 되어 남성이 복식의 여성적 이미지를 채택하거나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를 채택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자아내기도 하고 또한 남성과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나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배제함으로써 중성적 이미지를 나타나게 되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글자 그대로 양성적 이미지의 것이지만 중성적 이미지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60년대 후반의 모노섹스(mono sex)나 유니섹스(uni sex)라 불려지던 년 섹스(non sex)한 패션과 통한다.⁴⁸⁾ 여기서는 앤드로지너스 룩을 만든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분류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3〉 복식에 나타나는 성 이미지

이미지 성별	양성적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
남 성	이성(異性) 이미지의 복식 착용	성적 이미지가
여 성		배제된 복식착용

1) 복식의 양성적 이미지

복식에 나타나는 양성적 이미지는 복식에서 이성(異性)의 이미지를 일부 혹은 전체를 도입한 경우 즉 복식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혼동된 경우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⁴⁹⁾ 즉 반대 성 이미지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경우로 복식 자

46) 강정화, 앞글, p.18.

47) Davis Fred,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1992, p.35-36.

48) 임선경, 《Pop Music 가수 Fashion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34.

49) 이민선, 《복식에서의 성의 가시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12.



〈그림 1〉 Jean-Paul Gaultier
〈'95 Uomo Collezioni〉



〈그림 2〉 Jean-Paul Gaultier
〈Mémoire de la mode〉



〈그림 3〉 이신우 옴드
〈Fashion Today 94년 3월〉



〈그림 4〉 Sportmax
〈'88-'89 Collection〉

제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공유해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경우와 이성의 복식요소를 전체에 도입한 경우에도 착용자의 성을 완벽하게 위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착용자의 성이 남게 되어 자신의 신체적 성과 복식을 통해 상대방 성을 공유함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다.

(1) 형태

의상 디자인 요소인 형태는 의상의 실루엣이나 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형이 선의 효과를 내기도 하고, 선에 따라 형의 효과가 결정되므로, 선과 형을 별개의 디자인 요소로 보기보다는 선의 개념 속에 형을 포함시킬 수 있다.⁵⁰⁾ 여기서는 형태를 의복을 이루는 요소인 실루엣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실루엣은 착용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의복이 외곽선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유행변화의 기본이 된다.⁵¹⁾ 실루엣을 통해 인체 부위가 축소되

도 하고 강조되기도 함으로써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실루엣에 있어서 넓은 어깨와 가슴을 강조하는 역삼각형(inverse triangle 또는 Y)실루엣은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며, 아워글래스(hourglass 또는 X)실루엣은 가슴과 허리, 엉덩이를 강조하므로 여성적 이미지가 강하다. 또한 남성적 실루엣은 직선적이며 헐렁하게 맞는 테일러드 유형의 옷으로 여겨지며, 여성적 디자인 유형은 곡선이 사용된 몸에 맞는 옷으로 정의되어진다.⁵²⁾ 그러나 여성복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남성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것이며 여성복에서의 어깨 강조는 1940년대 밀리터리 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패드를 넣어 어깨를 강조하거나 견장을 이용해 어깨를 장식해주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허리는 여성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표현하여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명확한 허리곡선은 의복으로 에로티시즘을 표출하는 성감대 중의 하나였다.⁵³⁾ 그러므로 남성복에서의 허리 강조는 여성적 이미지의

50)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1983, p.85.

51) 이은영, 앞글, p.88.

52) M. N. Davis, 앞글, p.423.

표출을 통한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남성복에서의 허리 강조는 끈으로 허리 묶기, 벨트 착용이나 여성이 허리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던 코르셋의 변형<그림1>등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슴은 여성의 형태 특징을 띄는 입체적인 부위로서 의복에서 가슴의 강조는 가슴을 노출시키거나 전면으로 들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⁵⁴⁾ 이러한 여성의 가슴강조가 남성복에도 사용되어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1990년대 이후 남성복에서 자켓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형식으로 남성의 가슴을 노출 시킴으로써 여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또한 <그림 2>는 장 폴 고티에의 작품으로 남성의 가슴을 직접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다. 유방은 모성과 성적 상징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90년대에 와서는 유방에 대한 고정적인 의미는 없어지고 여성이라는 상징성 그 자체도 애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티에의 콘브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없애주고 인체에서 발란스를 이루어 미를 창출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⁵⁵⁾

남성적인 실루엣은 폐쇄형으로 뚜렷한 가장자리와 연속적이고 단순한 형이고 여성적 실루엣형은 개방형으로 희미한 가장자리와 불연속적인 복잡한 선을 나타낸다. 남성복에서 보이는 레이어드 룩<그림3>은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즉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복의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하여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로 분류되었던 서로 대립적인 두 개의 이미지가 한 복식에 동시에 표현되어 성이 공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바지 위에 스커트의 레이어드는 남성복의 여성화의 한계를 나타낸다. 여성복에는 남자의 전용물인 바지가 도입되어 대중화되었지만, 남

성복에 있어서 스커트는 단지 코디네이션의 도구로 채용될 뿐 일반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에서는 남성복에 여성적 이미지였던 신체적 노출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복에서 볼 수 있었던 관능성을 표출하는 신체의 노출이 남성복에도 나타나 기능성보다는 심미성과 관능성을 고려한 정장에 착용된 반바지, 셔츠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자켓을 착용한 깊이 파인 네크라인, 소매 없이 조끼만 착용한 팔의 노출같은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이 반영되었다. 이에 비해 여성들의 신체 노출은 남성적 이미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성복의 신체노출의 의미는 과거의 에로티시즘적 요소보다는 여성성의 상징으로서의 가슴을 드러냄으로서 은밀하게 내재된 성을 해체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남성,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해 인간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페미니즘적 성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남성복의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가 바지 위에 치마를 착용함으로써 극대화되었다면 <그림4>처럼 여성이 하의에 치마를 착용하고 상의에 남성복의 테일러드 자켓과 넥타이의 착용은 치마와 자켓의 결합으로 여성복의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소재와 질감

의복에서의 소재는 기술에 의해 형을 부여받고, 복식 표면 위에 표현된 질감은 미적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질감은 사물의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촉감을 연상케 하면서 우리의 시각에 와 닿기에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의 표현을 나타내는게 가능하기에 앤드로지너스 룩의 표현에 활용된 질감을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두꺼운 질감은 침착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보이게 하여 소박한 야성미를 느끼

53) Prudence Glynn, <Skin to Skin : Eroticism in Dress>, London : Geoge Allne and Unwin, 1982, p.31.

54) 윗글, p.38.

55) 구인숙, 이영재, 앞글, p.11.



〈그림 5〉 Jean-Paul Gaultier
〈'95-'96 Uomo Collezione〉



〈그림 6〉 Sonja Nutall
〈'98 Collection〉



〈그림 7〉 Scapa
〈'95-'96 Uomo Collezione〉

게 하는 남성적인 이미지이며, 얇은 질감은 하늘거리는 가벼움으로 흔들림을 표현하고 여러겹 겹쳐서 생기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여성적 이미지이다.⁵⁶⁾ 즉 남성복에서의 얇은 재질의 셔츠는 하늘거리면서 양성적 이미지를 주고 이에 비해 두꺼운 느낌의 트위드, 홈스펀, 크레이프 직물은 여성복에 사용되어 양성적 이미지를 준다.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인 얇고 가벼운 실크는 남성복의 셔츠, 수트 등에 사용되어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또한 비쳐 보이는 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는 쉬폰, 망사, 레이스, 비닐 등으로 이러한 소재들은 여체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노출하여 성적매력을 표현하는 여성적 이미지이나 남성복의 양성적 이미지에 반영되어 남성용 셔츠를 비쳐 보이는 재질로 재구성하여 우아하고 로맨틱한 인상을 준다. 또한 남성복에서의 광택 있는 소재인 벨벳, 라메, 실크 등의 사용은 광택으로 인한 풍성함과 고급스런 이미지로

양성적 이미지를 자아낸다. 〈그림5〉의 우아한 광택의 공단 수트는 A라인 실루엣으로 더욱더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으나 수염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주고 있음으로써 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앤드로지너스 룩의 양성적인 이미지는 남성복에서의 니트의 사용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니트는 남성복에 사용되어 신체의 실루엣을 나타내기도 하고 곡선적인 부드러움과 울동감을 주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화려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반짝이는 소재와 포피가 남성복에 사용되어 남성복의 양성화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의 사용(그림 6)은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재이다.

(3) 무늬

의복에서 장식의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무늬이며 장식활동으로서의 무늬는 가장 수수하게 의복의 성격을 반영한다.⁵⁷⁾ 꽃무늬와 식물무늬는 자연적 무늬의 대표적인 것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력

56) 오희선, 박화순,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4, p.173-174.

57)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p.31.



〈그림 8〉 Angelo Tartazzi
〈'88-'89 Collection〉



〈그림 9〉 〈You & I〉



〈그림 10〉 Jean-Paul Gaultier
〈'96-'97 Uomo Collezioni〉

이 느껴지고 유연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여성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무늬이다.⁵⁸⁾ 이러한 여성성을 표현하여 여성복에서 볼 수 있었던 꽃무늬(그림7)는 양성적 이미지가 느껴지는 남성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하학 무늬는 직선을 이용한 구성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스트라이프, 체크무늬 등이 속한다.⁵⁹⁾ 기하학 무늬의 직선이 주는 골은 인상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인상과 더불어 단정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어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체크무늬와 스트라이프는 무늬가 없는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남성미를 나타낸다. 〈그림8〉은 전형적인 남성 스트라이프 수트지만 셔츠칼라에 리본을 매춤으로써 여성적 이미지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성복의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와 남성복의 꽃무늬는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짧은 머리는 남성적 이미지로, 긴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여성적 이미지로 고정 관념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성(異性)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앤드로지너스 룩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의 록 가수들의 패션 속에서 시작되었다. 남성 가수들은 자신들의 극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남성 연주자들은 여성들만이 착용하고 있던 스커트, 짙은 메이크업, 화려한 장신구, 여성들이 사용하는 소품과 긴 헤어스타일을 사용하였고, 반면 여성 연주자들은 남성적인 짧은 헤어스타일과 짙은 눈썹과 아이라인만으로 눈을 강조하고 짙은 색의 립스틱으로 남성적인 이목구비만을 강조하였다.⁶⁰⁾

대표적인 헤어스타일로는 1980년대 유행한 스파이키 헤어(Spiky Hair)나 짧은 커트 머리를 모두

58) 오희선, 박화순, 앞글, p.176.

59) 김영자,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1992, p.138.

60) Mablen Johns(1987), Getting it on, N. Y: Abbeville Press, p.92.

뒤로 쓸어 넘긴 스타일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에게는 짧은 머리가 유행하였다. <그림9>는 머리를 밀어서 극단적인 극단적인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긴 웨이브 머리로 양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준다.

메이크업은 여성이 남성처럼 눈썹을 짙게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은 본래의 얼굴에 가까운 자연스런 색조 화장을 함으로써 남자가 얻은 화장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거나 흰색이 많이 포함된 광택 없는 색조 화장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 같이 표현하였다.

남성의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수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메이크업은 여성의 일이고, 수염은 남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소를 없애거나 더 뚜렷이 함으로써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전형적인 남성복 차림의 여성은 화장을 함으로서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남성의 화장은 여성적 이미지를 나타내 준다. 또한 수염은 남성이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의복을 착용했을 때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로서 사용된다. <그림10>은 남성복 위에 여성의 드레스와 장갑의 착용으로 강한 여성적 이미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염을 그려줌으로써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5) 액세서리

앤드로지너스 룩의 양성적 이미지에 있어서 액세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착용한 인물의 복장에서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하는 강도는 다르지만, 액세서리들은 앤드로지너스 룩의 표현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즉 직접적인 이성(異性)의 단품이나 소품을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전유물 중 하나였던 셔츠와 재킷과 바지 수트를 단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은 재킷과 바지를 고수하고 있지만, 수트 차림이 아닌 단품 코디로 여성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성의 스커트나 블라우스

착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스커트 착용은 앤드로지너스적 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앤드로지너스 룩에 사용된 여성적, 남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악세사리를 살펴보면, 여성에게는 남성용 슈즈나 군화, 넥타이, 모자가 많이 쓰였으며, 남성에게는 목걸이, 반지, 스카프, 코르사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넥타이에 있어서 여성들은 전형적인 현대 남성의 것을 착용하였고 남성들은 크라바트나 자보 같은 다소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다.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등은 근대 이후 여성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 더 이상 성의 구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앤드로지너스 룩의 표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남성에게 중요한 액세서리들이다. <그림11>은 많은 액세서리의 착용과 웨이브진 긴 머리, 치마의 착용등과 함께 부채를 들고 있음으로 여성적 이미지를 주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도 남성복을 그대로 착용한 경우 귀걸이, 브로치,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는 남성적 이미지에 여성적 이미지를 추가하여 앤드로지너스 룩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성에게 있어서 담뱃대나 지팡이도 앤드로지너스 룩의 표현에 많이 등장하는 소품이다. 담배는 남성적인 면을 가장 강하게 나타낼 수 있고, 지팡이<그림12>는 체플린 룩이 등장하면서 더욱 많이 사용되어 졌다.

2) 복식의 중성적 이미지

복식의 중성적 이미지란 남성과 여성이 복식의 남성적 이미지나 여성적 이미지를 모두 배제한 중성의 스타일을 착용한 것을 말한다. 즉 남, 녀가 공용하는 스타일로 인간 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중성적 이미지는 앤드로지너스 룩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남녀의 체형에 근거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Y형이나 X형의 윤곽선을 피한 신체를 은폐하는 드



〈그림 11〉 Jean-Paul Gaultier
〈'92 Collection〉



〈그림 12〉 〈Vogue Italia 93년 9월〉



〈그림 13〉 Jean-Paul Gaultier
〈'96 Collection〉

레이퍼리나 튜닝형의 평면형의 비구조적인 형태로
서 실루엣, 재질, 무늬등에서도 두드러진 여성적
혹은 남성적 특질을 배제한 중립적인 이미지⁶¹⁾를
나타내어 남성,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인간자체의
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에 근거
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시되고 정신적 가치를 강
조한 시대에는 우주론적 성격을 지닌 중성적인 미
가 추구되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시대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 모드가 성(性)적

〈표-4〉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복식요소

	남성복에 보이는 여성적 이미지	여성복에 보이는 남성적 이미지
실루엣	아워글래스 실루엣 : 허리강조, 가슴강조, 처진 어깨	역삼각형 실루엣 : 어깨강조, 스트레이트 실루엣
	레이어드: 상의를 길게 입기, 바지 위에 치마착용 신체노출: ①정장에 착용된 반바지 ②셔츠 없이 착용된 자켓 ③소매 없는 상의착용	치마 위에 테일러드 자켓과 벵타이 착용 신체노출
질감	얇고, 가볍고, 부드럽고, 비쳐 보이고, 반짝이는 질감.	두껍고, 무겁고, 거친 질감 사용
소재	실크, 벨벳, 쉬폰, 망사, 레이스, 망사, 니트, 모피, 비즈	가죽, 크레이프, 홈스펀, 트위드,
무늬	꽃무늬, 식물무늬, 작은 무늬, 전면무늬	전면무늬, 큰 무늬,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
헤어스타일	긴 생머리, 긴 웨이브 머리	짧은 머리, 스파이키 헤어
메이크업	짙은 화장	자연스런 화장, 짙은 눈썹과 아이라인
단품	치마, 블라우스	셔츠, 바지, 자켓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여성용 벨트, 부채	남성용 슈즈, 벵타이, 모자(중절모), 담배, 지팡이

61) 이민선, 앞글, p.13.

특징이 배제된 동일한 복식을 착용하였으며, 장신구등을 통해서만 성차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과거의 복식에서 보이던 트레이퍼리나 튜닉형의 복식이 다소 변경되었지만, 남성과 여성으로서가 아닌 하나된 인간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앤드로지너스 복식에도 보이고 있다. <그림13>은 튜닉형의 복식으로 의복으로서 성(性)을 구분하던 것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양성적 이미지가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로 자신의 성을 감추려 했던 것과는 달리, 중성적 이미지는 자신의 성은 그대로 인정하는 남성적, 여성적 원래의 이미지에 고대 그리스에서 남, 녀 모두가 착용한 튜닉형의 옷을 입음으로서 남, 녀 이분법을 극복하려 했다.

둘째, 서구에서 인간을 세계에 대한 인식의 주체자로서 여긴데 반해⁶²⁾, 동양에서는 인간 그 주체가 보고있는 대상 자체, 즉 객체인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⁶³⁾ 인체보다는 정신을 중요시하여 복식에서 성에 관한 표현을 거의 무시하였다. 즉 동양 문화권에서도 복식의 형태를 통하여 인체를 은폐하였으며, 의복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적 요소의 탈피는 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새로운 인간형인 앤드로지너스의 중성적 이미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서양패션에서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서는 성적 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중성적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많다.

즉 동양 복식은 디자인 발상의 시작에서부터 성의 구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의지는 80년대 초에 주목을 받게되는 비구축주의(unconstructivism) 일본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⁶⁴⁾ 즉 이세이 미

야케(Issey Miyake),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걸치기, 두르기, 휘감기로 의복을 코디네이트하여 기존의 전형적인 패턴을 완전히 파괴한 비구축주의로의 과감한 시도로 패션의 한계에 도전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의복은 꼭 재봉해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걸치기, 두르기, 휘감기를 통해 의복을 착용하므로써 남성복, 여성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성별에 따른 기존의 의복착용법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자유로운 디자인과 패턴에는 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기에는 다만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거기에는 동서양의 장벽도 없었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동양적인 것, 서양적인 것의 테두리를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는 인간의 자유로움에 대한 욕구를 가장 극대로 표현해 준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14>는 주름을 잡은 천을 '걸치기'의 방식으로 착용해줌으로써 기존의 남,녀를 구분해주던 착용방식에서 벗어난 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셋째,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중성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즉 중성의 원래 의미인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또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⁶⁵⁾의 이미지로 복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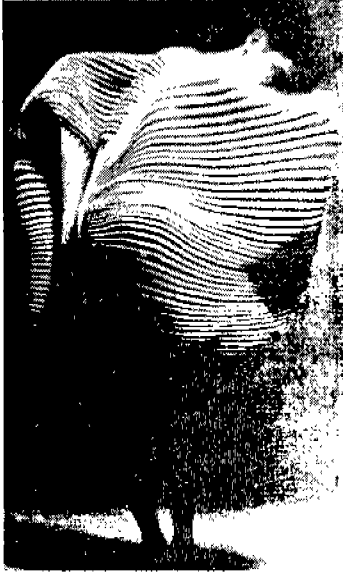
이렇게 같은 복장의 착용에서 드러난 앤드로지너스의 중성적 이미지에서 특이한 점은 양성적인 이미지가 자신의 성을 은폐시키거나 이성의 성 이미지를 도용하려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성은 그대로 인정한 채 남, 녀 같은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진정한 남, 녀 해방 즉 인간 해방을 이루려 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림15>는 질은 화장과 목걸이, 긴 장갑등으로 여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모자와 몸에 타이트한

62) 박용숙, <현대 미술의 반성적 이해>, 서울: 집문당, 1988, p.18.

63) 윗글, p.18.

64) 김이근, 앞글, p.81.

65)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서울 : 민중, 1993, p. 1986.



〈그림 14〉 Issey Miyake
〈The Face of Fashion〉



〈그림 15〉 Dolce & Gabbana
〈'95-'96 Uomo Collezione〉

슬리브리스 T-셔츠의 착용으로 중성적인 이미지가 동상에 느껴진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의 중성적 이미지야말로 페미니즘에서 제시한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너스 인간형에 부합될 수 있다. 즉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강하게 여자를 표현하는 것도 아닌 성을 초월한 독립된 하나의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의미에서 앤드로지너스이다.

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너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현대복식에 보이는 앤드로지너스 룩의 이미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더불어 페미니즘 영향아래서의 현대복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본 연구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페미니즘적 성개념인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를 분석하여 사회적 의미로서의 복식현상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페미니즘에 의한 여성교육의 증가, 산업화에 따

〈표-5〉 현대복식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중성적 이미지

중성적 이미지: 남성과 여성의 성을 배제하고 인간자체의 통합적 이미지를 나타냄			
복식의 특징	드레이퍼리나 튜니형의 평면형인 비구조적인 형태로 남녀의 체형에 근거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Y형이나 X형의 윤곽선을 피해 신체를 은폐	걸치기, 두르기, 휘감기의 형태로 성별에 따른 기존의 의복 착용법을 해체시켜 형태미에서 성적요소가 거의 발견되지 않음	이성의 아이টেম을 착용하거나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로 변형된 형태로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음
의미	남성, 여성이 아닌 하나의 인간공동체를 추구함 => 남녀 이분법을 극복	동양에서는 인체보다는 정신을 중요시하여 복식의 형태를 통하여 인체를 은폐시키려 함	성질서에 도전하여 성차를 인식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옷을 착용

른 사회 경제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였고 핵가족화와 가사노동의 감소로 인해 성역할이 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리학에서는 남성성, 여성성으로 나뉘는 성역할의 이분법이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역할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보아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는 양성성(Androgyny) 개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일반심리학적 배경과 더불어 80년대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녀평등의 실현보다는 성의 차이에 주목해 남녀이분법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성차를 없애고자 했으며, 남녀 공동의 인간해방, 즉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니를 등장시켰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이 제시한 앤드로지너스는 1980년이래 현대복식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복식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성이미지를 양성적 이미지와 증성적 이미지로 나누어 조형적 분석을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페미니즘적 성개념인 '앤드로지니'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 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역할이 분화하고 다양화되어 남성성, 여성성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개인에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양성성의 개념은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한 현실속에서 성공적인 역할수행에 꼭 필요한 성개념이다.

둘째, 복식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의 양성적, 증성적 이미지는 '여성성' 혹은 '남성성'을 뛰어 넘어 한 가지 성위에 다른 성의 요소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하나의 통합된 완전한 존재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1990년대 이후에 보이는 앤드로지너스 룩은 관념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의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융합시켜 나타냈다. 즉 앤드로지너스 룩은 관념적인 시각적 특징을 갖는 의복의 형태로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전한 분리가 아닌 서로의 특징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멋을 창조하고 있다.

넷째, 앤드로지너스 룩이 복식에서 보여주었던 인간 통합적 이미지는 남녀를 분리해 주던 복식의 기능을 치유함으로써 시대를 앞선 패션 경향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였다. 이는 패션이 단순히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써 21세기의 복식형태를 예시해 주고 있다.

다섯째, 페미니즘이 제시한 새로운 성개념은 20세기 패션의 이분법적 복식형태를 없애고자 하던 결정체를 이루었지만, 더 나아가 21세기의 전환기인 현재에 보이는 앤드로지너스 룩은 한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션 현상이다.

여섯째,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 시대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적응방식을 인간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므로 현대패션에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앤드로지너스 룩은 이분법적인 성개념을 파괴함으로써 얻게되는 완전한 자유에 대한 욕구, 인간이라는 하나된 존재로 세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지의 반영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의 '반영'으로서 페미니즘이 제시한 새로운 성개념인 앤드로지너스 룩의 복식을 연구한 결과 새로운 시대정신과 스타일을 '창출'한 복식의 역할도 더불어 밝혀 낼 수 있었으며 앤드로지너스 룩은 성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감성을 찾으려는 인간 의지의 표현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패션에 있어서 표현의 범위를 넓혀 갈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1984), <의상사회심리학> 서울:교문사.
- 고영복(1994), <현대사회문제>,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김영희, 이명호, 김영미(1992), <포스트모던 여

- 성해방론 딜레마), 여성과 사회
- 김영자(1992), <패션디자인>, 서울: 경춘사.
 - J. Donovan, 김익두, 이월영역(1993), <페미니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 하이디 하트만, 린다 번햄(1989) 외 지음, 김혜경, 김애령 옮김,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서울: 태암.
 - 신상옥(1989), <서양복식사>, 서울: 수확사.
 - 신유희(1983), <여성학 영역별 연구: 철학적 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ggie Hum, 심정순, 엄경숙 옮김, <페미니즘 이론사전>, 서울: 도서출판 삼신각, 1995.
 - 오희선, 박화순(1994),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 이은영(1983), <복식의장학>, 서울:교문사.
 - 이소영, 정정호(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신문화사
 - 로즈마리 톱(1995),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서울: 한신문화사
 - 전병제(1981), <사회심리학>, 서울: 경문사
 - David Bond, 정현수역(1992), <20세기 패션>, 서울:경춘사.
 - 엘리자베트 바텐데, 최석 역(1992), <XY 남성의 본질에 대하여>, 서울: 민맥.
 - A. G. Kaplan(1989), <Psycholgy and Sex Rol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em, S. L.(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cal, Vol. 42, no. 2.
 - Ernestine. Carter(1975), <20th Century Fashion>, London:Eyre Methuen.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 J. C. Flügel,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30
 - James Laver(1992), <Costume & Fashion>, Thames & Huston
 - June Singer(1976), <Androgyny>, Anchor Press.
 - Marian L Davis(1987),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Prudence Glynn(1982), <Skin to Skin : Eroticism in Dress>, London : Geoge Allne and Unwin.
 - Simone de Beauvoir(1972), <The Second Sex>
 - 강정화(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앤드로지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광미영(1990),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850-1950)>,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인숙, 이영재(1996), <현대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 김윤경(1992), <남자 대학생의 유행선도력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근(1995),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채희(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아(1993)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형태와 성역할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1993), <복식에서의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선경(1994), <Pop Music 가수 Fashion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홍희(1994),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과 실제>, 월간 미술 7월호.
 - 전체정(1994),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여성연구논총.